Ⅱ. 출제의도와 문제해설(인문계)

1. 2011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고사는 2010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출제될 것이다. 이러한 출제 유형은 2007학년도 통합 논술에 비하여 통합의 정도 및 난이도를 완화시킨 2008학년도 이후의 논술 출제 경향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의 논술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특별히 감안해서 출제될 것이다.

첫째,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보정에 적합한 문제로 구성될 것이다.

둘째, 수험생들의 수준 및 응시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가 유지될 것이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아무리 그 자체로 좋은 문제라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입 시험을 위한 문제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 출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출제의 기본방향이 유지될 것이다.

(1)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를 위하여 ①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② 자신의 견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조리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③ 주어진 자료 속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2) 고교 내신에 대한 보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고교 내신에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통합 교과형 논술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목에서 각기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종합적 판단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문제를 출제한다.

(3) 이를 위하여 출제팀 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특히 인문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요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출제의 소재와 방향, 제시문의 유형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금번 모의고사는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의 논술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본 모의고사 문제가 수시 논술의 개괄적 형식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실제 수시 논술에서는 출제 기본 방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본 모의고사에서 제시된 유형과 배점이 다소 변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제시문의 공통 주제는 '모순'이다. 제시문들은 모순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문헌에서 발췌되었다.

논리학에서 모순은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 간의 관계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변증법적 모순 개념은 오히려 대립하는 두 사태에서 한 단계 더 고양되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이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상호 모순되는 체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실존으로서의 인간의 모습과, 모순을 포용하고 절충하는 사고방식이 거론되기도 한다. 수험생은 이처럼 모순과 관련된 여러 관점을 담고 있는 제시문들에 나타난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에 기초하여 논제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금번 모의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여, 통합교과적 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및 사회과학적 사유, 그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1)은 과학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저서 『추측과 논박(Conjectures and Refutations)』에 실린 "변증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변증법이란 무엇인가"는 1937년 처음 발표된 글로, 포퍼의 초기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적 입장을 잘 보여준다. 포퍼는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과학철학은 물론 사회철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저작들을 남겼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 사회철학 분야의 대표작이라면, 『추측과 논박』은 포퍼의 과학철학을 대표하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포퍼는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판적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 이성의 오류가능성이 포퍼의 철학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그는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독단적인 지식에 반대한다. 포퍼에게 모든 지식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완전한 가설에 불과하며, 이 가설은 비판에 의해 더욱 완성도 높은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잘 알려진 개념인 '반증 가능성의 원리(falsifiability principle)'이다.

포퍼는 일관되게 절대적 진리에 대해 부정적이다. 제시문 역시 변증법론자들이 모순의 종합을 진보로 상정하는 것을 비판한다. 포퍼는 모순을 오류로 보고, 그것이 더 나은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될 때만 변증법이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포퍼의 말을 빌면 "모순의 창조성은, 우리가 진술들 간의 모순을 허용하지 않고 모순이 내포된 이론은 어떤 것이든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다." 모순을 묵인하거나 용인하게 되면 비판은 힘을 잃게 된다고 지적함으로써, 비판적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증법론자들은 모순이 유익하며, 불가피할 뿐 아니라 진보를 낳는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과학의 기본 원칙인 모순율을 위배하는 것이며, 비판적인 지식 과정으로서의 과학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포퍼는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제시문은 모순의 변증법적 해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이 글의 말미에서 포퍼는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유물론적 변증법이 '강화된 독단주의'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함으로써 과학철학자이자 사회철학자로서의 자신의 면모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2)는 1960년 『개벽』에 발표된 최인훈의 중편소설 『광장』의 후반부와 마지막 대목이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주인공 '명준'은 부패한 남한에 환멸을 느끼고 월북한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간 북한 사회에는 오로지 코뮤니즘의 기계적 명령과 복종이 있을 뿐, 명준 자신이 꿈꾸던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와 이념의 공간인 '광장'을 남과 북에서 발견하지 못한 명준은 전쟁에 뛰어든다. 그러나 전쟁에서도 새로운 삶을 발견하지 못한 그는 결국 포로가 되고, 송환과정에서 남과 북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놓인다. 자신이 나설 '광장'이 남쪽과 북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명준은 중립국을 선택한다. 그러나 포로들을 싣고 중립국으로 향하던 배가 남지나해를 지나는 날 밤, 명준은 바다에 투신자살하고 만다. 이 작품은 해방에서 6·25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서로 상충하고 대립하는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가 지니는 허구를 지적함으로써, 인간 삶의 궁극적 조건을 고구하고 분단의 이념적 문제들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시문은 주인공 명준이 북한의 이념적 구속과 자유의 부재에 환멸을 느끼는 대목,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이유로 남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대목, 진정한 '광장'을 찾아 중립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명준이 자살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구성된다. 믿음을 지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참된 이념과 도덕이 사라진 북은 명준에게는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무서운 밀림'이자 '미친 믿음'으로 가득한 곳이며, 한편 자유를 표방하지만 진정한 자유 대신 타락과 방종으로 가득한 남쪽도 인간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 가난과 악으로 점철된 세계일뿐이다.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명준에게 이러한 남과 북은 이미 '모순'이며,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뜻 선택하기에 불가능한 세계로 귀결되고 만다.

제시문에서 '모순'과 '모순적 상황'은 크게 보아 네 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내적 모순, 남한 사회의 내적 모순, 대립에 처한 남과 북의 역사적 모순, 둘 중 오로지 한 곳만을 선택해야 하는 명준의 상황적 모순이 그것이다. 여기서 명준의 중립국 선택이나 자살은 모순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며, 비로소 이때 모순적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고 할 때,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은 현실 세계의 모순된 두 체제를 감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또는 그것을 거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시문 (3)은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ebett)이 2003년에 출간한 저서,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에서 발췌한 것으로,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하였다. 니스벳은 사회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미국 과학원 회원으로 선출된 인물이며, 현재 미국 미시건 대학교 심리학과의 테오도르 뉴컴(Theodore M. Newcomb)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이 책에서 풍부한 실험을 바탕으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 방식이나 구조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동양인과 서양인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 사회구조, 철학사상, 교육제도로 인하여 매우 다른 사고방식과 지각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양인은 좀 더 종합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사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다른 사물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하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동양인에 비해 좀 더 분석적인 사고에 익숙한 서양인은 사물과 사람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형식논리나 규칙을 사용하여 추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의 저서에서 발췌된 제시문은, 동양 학생들이 서양 학생들에 비하여 모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양 극단을 포용하려는 동양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부분이다. 동양인의 이런 사고방식은 모순이 되는 주장들을 타협을 통해 수용하려는 특징을 갖는

다. 동양인에게 우주는 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개념들도 고정적이거나 객관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리고 그런 우주 속에는 늘 대립과 역설이 발생하고 선악이 공존한다. 그래서 노자는 "추함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고 악함이 있기 때문에 선함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대립 개념의 당위적 존재 의의를 강조한 것이라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동양인들은 사물들의 상호연관이나 맥락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대립 모순 관계에 있는 개념들조차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제시문 (4)는 미하엘 볼프(Michael Wolff)의 『모순의 개념(Der Begriff des Widerspruchs)』과 고트프리트 슈틸러(Gottfried Stiehler)의 『변증법적 모순(Der Dialektische Widerspruch)』에서 각각 일부를 발췌해 출제 의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순'은 투쟁 관계에 있는 두 대립물이 공존하면서 맺는 상호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모순은 '논리적 모순'과 '변증법적 모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논리적 모순이 사유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변증법적 모순은 객관적 실재에 속하며 모든 운동과 변화·발전의 근원이라고 주장된다. 볼프의 『모순의 개념』은 변증법적 모순이라는 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헤겔의 모순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볼프는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적 모순이 어떤 대상이 다른 시간이나 측면에서 가지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순율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것은 사물 자체에 속하여 객관적으로 현존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모순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헤겔은 운동과 위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운동하는 사물은 순간 T에 위치 L에 있으면서 위치 L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모순의 기원이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오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본질 속에 있다는 말이다.

슈틸러의 『변증법적 모순』은 모순이 변증법적 운동의 근원이자 추동력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모순이 사고상의 오류에 그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며, 인간사회는 대립 및 갈등이라는 모순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란 결국 인간사회 자체의 내적 모순에 의해 발생하고 또 그 모순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기운동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파악된 모순의 개념은 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사회의 발전과정에는 언제나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경향들이 서로 충돌한다. 이때 낡은 것은 주어진 것이고 전통적으로 유지된 것이며, 새로운 것은 유지된 것으로부터 힘들여 만들어낸 것이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간의 모순은 일면 양 측면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지만, 다른 면으로는 대립물들의 불화(不和)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관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순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와 같은 역동적 대립관계의 발전 국면을 전개시키는 한편 새롭게 산출되는 극성의 성숙한 국면도 나타내게 된다.

변증법적 모순은 '발전 단계'뿐만 아니라 갈등, 불일치, 불균형 등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문학에서 형상화되는 모순은 갈등이라 일컬어진다. 문학적 형상화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충돌을 내포하는 모순의 일반적 구조의 관점에서 모순의 전개과정과 해결을 따라가게 된다. 또 통일적인 사회적 기초를 전제할 때 문학적 형상화는 다양한 모순들에서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일치에 이른다. 헤겔의 변증법적 모순 개념은 이런 관점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며, 제시문 (4)는 변증법적 모순 개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을 드러낸다.

제시문 (5)는 구성원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불합리성을 초래하는 현상에 대한 지문이다. 이처럼 '합리성의 역설'이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은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선택이 자신의 이득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진다. 한 개인이 타인의 선택을 모르고서 내리는 결정은 타인의 선택의 향방에 따라 다른 이득을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이 경우 개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여러 가설들 중에서 제시문 (5)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소개하고 이 원칙에 따르는 개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예시한다.

아울러 제시문 (5)는 사회적 합리성과 관련하여 정치철학, 윤리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들에서 기초적이라고 알려진 조건을 소개하고 있다. 즉, 모든 구성원의 후생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소진한 상태에서 사회적 합리성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시문은 합리성의 역설이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합리성의 역설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세 가지 전형적인 상황을 소개한다.

제시문 (5)는 사회적 딜레마에 대한 Dawes(1980)와 Liebrand(1983)의 논문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이 연구들은 사회적 딜레마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하는지 분류하고 있다. 제시문 (5)에 소개된 세 가지 상황은 Liebrand(1983)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들에서 고려하는 합리적 선택의 원칙은 현재 널리 사용되는 '균형' 개념에 입각한 것이고, 이는 제시문 (5)의 최소극대화의 원칙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Liebrand(1983)가 보이듯이 비록 위 세 상황에서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하더라도, 최소극대화의 원칙 하에서는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Robyn Dawes, "Social Dilemmas", *Annual Reviews of Psychology* 31 (1980), pp. 169-93과 Wim Liebrand, "A Classification of Social Dilemma Games", *Simulation and Games* 14 (1983), pp. 123-38 참조) 단, 제시문 (5)는 수험생들이 이런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질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며, 제시문에 함축되어 있는 논리적인 의미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론하면 충분히 논제 Ⅳ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3. 논제 해설

수험생들의 독해 및 표현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논술의 목표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소 복잡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중요한 논점을 추출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주어진 분량 속에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험생들은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논리적 사고 문제에서는 제시된 조건들과 모형을 이해하고 논제가 요구하는 논리적 추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Ⅰ은 제시문 (1)을 350~400자 내외로 요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시문의 핵심적인 논지를 파악해서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제한된 분량 안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 능력과 이해한 바에 대한 압축적 표현 능력이 요구된다. 제시문에서 필자는 변증법적 모순 개념이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요약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은 섬세한 읽기를 통해 핵심적 주제와 이 핵심 주제를 주변에서 지지하고 있는 부수적인 내용들을 파악한 후, 그것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요약문은 수험생이 독창적으로 만든 글이어야 하므로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답안에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중심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구성된 요약문이라야 출제 의도에 부합할 수 있다.

<답안 작성 포인트>

제시문 (1)은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근거해서 변증법적 모순이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논거를 제시하는 글이라는 점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그 다음 수험생은 이 글의 필자가 모순의 생산성과 창조성에 근거해서 변증법이 새로운 논리학의 길을 여는 것으로 평가하는 관점, 즉 자기가 비판하려는 관점을 변증법의 주요 개념들과 함께 소개한 후, 모순을 용인할 수 없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 논거란, 첫째, 상충하는 이론들의 공존을 허용함으로써 비판력이 상실된다는 것이고, 둘째, 모순율을 부정하면 과학적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자연계에서는 모순되는 사실들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순적 사실이 부재(不在)하면, 그런 사실을 기술하는 모순 명제도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히 귀결된다. 이런 요지들을 짜임새 있고 명료하게 표현한 요약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제 Ⅱ는 제시문(4)의 논지를 정리하고, 이를 준거로 그것이 제시문(1)의 논점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를 비교,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험생에게 제시문의 논지 이해 및 요약 능력과 제시문들의 관계를 비교,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수험생은 먼저 제시문(4)에서 주장하는 논지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4)는 헤겔이 모순 개념(변증법적 모순)을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 사물 그 자체의 본질에 모순이 기원하고 있다는 점, 모순 개념이 사회적 모순 해결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 모순 개념이 문학에서 갈등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헤겔의 모순 개념이 모순에 대한 독자적 이해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4)는 헤겔의 변증법적 모순 개념이 지닌 이론적 독창성과 그것이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변화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헤겔의 변증법적 모순 개념이 가진 긍정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제시문(1)은 변증법적 모순 개념이 지닌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놓여있다. 제시문(1)은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3요소를 가진 변증법은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변증법이 모순 개념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전통적 논리학의 모순율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증법은 진술, 이론의 모순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만 유익할 수 있다. 진술, 이론의 모순을 묵인, 또는 용인한다면 변증법적 모순은 그 다산성과 비판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지적인 종말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무익한 것이라고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술, 이론의 모순을 용인하는 것은 과학의 전면적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제시문(4)가 헤겔의 변증법적 모순이 지닌 발전과정과 변화의 역동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비해 제시문(1)은 변증법적 모순은 진술, 이론의 모순을 변경할 의지를 가질 때만 긍정적이며, 그것을 묵인하고, 용납할 때에는 창조적 생산력을 상실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과학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적으로 본다. 수험생은 제시문(4)와 (1)을 꼼꼼히 읽고, 그 논지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다른 논점들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제시문(4)의 논지가 두 제시문의 관계를 비교·설명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제시문(4)의 논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정리하는 노력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답안 작성 포인트>

제시문 (4)의 논지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째, 변증법적 모순은 일반 논리학에서의 모순 개념과는 다르다. 둘째, 변증법적 모순은 사물의 본질 속에 내재해 있는 객관적 사태로 파악된다. 셋째, 변증법적 모순은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설명할 수 있으며, 문학에서의 갈등을 형상화하는 도구로서 유용하다.

제시문 (4)와 (1)은 모순, 특히 변증법적 모순 개념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 두 제시문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는 변증법적 모순이 일반 논리학의 모순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반면, (1)은 양자를 같은 차원에서 봄으로써 변증법적 모순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4)는 변증법적 모순 개념이 사회적 변화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문학적 갈등을 형상화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점을 들어 변증법적 모순 개념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1)은 모순되는 명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적인 진보와 과학적 탐구의 종말을 초래한다고 봄으로써 변증법적 모순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셋째, (4)는 상호 모순되고 대립하는 상태가 객관적 현실 속에서 사물의 본질에 내재해 있다고 봄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모순되는 사태가 공존한다고 보는 반면에, (1)은 자연 세계에서는 모순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변증법적 모순 개념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논제 Ⅲ은 제시문 (3)에 나타난 동양적 사고의 관점에서 제시문 (2)의 주인공의 선택을 논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수험생의 제시문 (2)와 (3)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아울러 제시문 (3)의 주인공의 자살에 대한 수험생의 창조적 비판능력을 요구한다.

수험생은 우선 제시문 (2)의 주인공이 어떠한 동인(動因)과 정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포로가 된 주인공은 남한과 북한 두 체제 사이에서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해야 한다. 그의 냉철한 비판정신은 양 체제를 자유 없는 전체주의가 전횡하는 사회와, 자유는 있지만 도덕적 리더십이 결여된 사회로 판단하고서 시대적 모순의 출구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실존적 고통과 체제의 부조리 속에서 죽음을 택한 주인공의 입장에 대해, 모순율을 부정하고 모순과 대립의 이면에 있는 역동성을 직시하고 조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시문 (3)의 동양적 사고 방식은 확연히 대비된다. 양 체제의 모순만을 비판하는 주인공의 입장을 제시문 (3)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 체제의 한 단면만을 통해 전체를 일반화하는 편협한 판단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물론 모순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시문 (3)의 입장이고 (2)의 주인공의 비판정신이 윤리적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는 제시문 (3)이 제시하는 변증법적 사고와 대상의 복합성과 모순의 상대성에 대한 긍정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논지에 대한 단편적 적용에 불과하다.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는 그 이면의 사회 내적 동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모순의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제시문 (3)이 제시하는 지식인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 논제에 답할 때에는 '제시문 (3)에 나타난 동양적 사고의 관점에서'라는 단서에 유의해야 한다. 이 단서를 무시하고서 제시문 (2)의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수험생의 생각을 피력한다면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답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논제의 의도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수험생이 자신의 견해

를 얼마나 잘 서술하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제시문 (3)의 동양적 사고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정작 자신의 견해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이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답안 작성 포인트>

먼저 제시문 (3)에서 말하는 동양적 사고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순되는 주장들을 타협을 통해 수용한다. 둘째, 우주를 역동적으로 봄으로써 모순·대립 관계가 모든 사물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셋째, 형식 논리학적인 모순율에 따라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사고방식에 대해 거리를 둔다.

이제 수험생은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 (2)의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명준은 남과 북의 모순된 두 체제를 현실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서 방황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한다. 따라서 그는 (3)에서 말하는 동양적 사고보다는 오히려 서양적 사고방식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논제 Ⅲ은 그의 결정이 과연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수험생이 동양적 사고의 관점에 입각해서 견해를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견해에는 명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그가 취할 수 있는 대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논제 Ⅳ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의도되었다. 수험생은 제시문(5)에서 정의된 '최소극대화 원칙', '사회적 합리성', 그리고 '합리성의 역설'의 정의를 활용하여 주어진 세 가지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선택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상황 1에서 갑이 A를 선택할 경우 최악의 결과는 AB이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악의 결과는 BB이다. 갑의 이득은 BB에서 AB보다 더 크기 때문에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를 경우 갑은 B를 선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상황 1에서 을의 선택 역시 B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는 BB가 된다. 이러한 결과를 합리성의 역설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합리성의 정의를 숙지하고 상황 1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리성은 제시문 (5)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더 이상 사회구성원들의 이득을 동시에 높일 수 없을 때 달성된다'. 그러나 상황 1에서 AA의 결과는 BB에 비해 갑과 을 양자 모두의 이득이 높은 결과이다. 따라서 BB대신 AA가 실현된다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제시문 (5)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합리성의 역설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상황 1은 합리성의 역설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위와 동일한 분석을 나머지 두 상황들에 적용해 보면 상황 2에서의 결과는 AA이고 상황 3에서의 결과는 BB임을 알 수 있다. 상황 2에서는 사회적 합리성이 달성되고, 상황 3에서는 사회적 합리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개인적 선택의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논제 Ⅳ는 제시문에서 주어진 이 개념들에 대한 정의에 입각하여 상황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즉 수험생들이 제시문 (5)에서 주어진 여러 정의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의 분석에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답안 작성 포인트>

아래의 표는 논제 IV의 정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 표에 나와 있는 9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타당한 결과(굵은 글씨로 쓴 부분)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서술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답안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최소극대화에 따른 선택	선택의 결과	합리성의 역설의 관점에서 결과를 평가
상황 1	**갑**: A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AB이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BB이다. 갑의 이득은 AB보다 BB에서 더 크다. 따라서 최소극대화에 따라 **갑은 B를 선택한다.** **을**: A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BA이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BB이다. 을의 이득은 BA보다 BB에서 더 크다. 따라서 최소극대화에 따라 **을은 B를 선택한다.**	갑과 을 모두 B를 선택하므로 선택의 **사회적 결과는** BB이다.	갑과 을 모두 BB보다 AA에서 더 높은 이득을 얻는다. 모두 A를 선택하여 동시에 이득을 높일 수 있으므로 BB의 결과는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한다. 따라서 **'합리성의 역설'이 발생**하였다.
상황 2	**갑**: A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AB이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BB이다. 갑의 이득은 BB보다 AB에서 더 크다. 따라서 최소극대화에 따라 **갑은 A를 선택한다.** **을**: A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BA이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BB이다. 을의 이득은 BB보다 BA에서 더 크다. 따라서 최소극대화에 따라 **을은 A를 선택한다.**	갑과 을 모두 A를 선택하므로 선택의 **사회적 결과는 AA**이다.	AA에 비해서 다른 어떤 결과도 갑과 을의 이득을 동시에 높이지 못한다. 따라서 AA는 사회적 합리성을 달성하며, **합리성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황 3	**갑**: A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AB이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BB이다. 갑의 이득은 AB보다 BB에서 더 크다. 따라서 최소극대화에 따라 **갑은 B를 선택한다.** **을**: A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BA이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악은 BB이다. 을의 이득은 BA보다 BB에서 더 크다. 따라서 최소극대화에 따라 **을은 B를 선택한다.**	갑과 을 모두 B를 선택하므로 선택의 **사회적 결과는** BB이다.	갑과 을 모두 BB보다 AA에서 더 높은 이득을 얻는다. 모두 A를 선택하여 동시에 이득을 높일 수 있으므로 BB의 결과는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한다. 따라서 **'합리성의 역설'이 발생**하였다.

4. 평가 기준 및 유의 사항

수험생들의 독해 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논술고사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통합적 측면을 위하여 여러 제시문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되, 논제를 개별화하여 구체적인 항목마다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논술의 성격상 정형화된 하나의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설명이나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넷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끝으로 고려대에 응시할 학생들은 2011학년도 논술고사부터는 종래와 달리 논제 Ⅱ가 세분화되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논제 Ⅱ가 복합적이었지만, 금번부터는 논제 Ⅱ와 논제 Ⅲ으로 나누어 수험생들에게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제 Ⅱ에서는 주로 제시문들의 논지에 대한 이해와 제시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파악을 테스트하는 반면에, 논제 Ⅲ은 수험생의 견해를 피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매년 공통주제와 제시문들의 성격에 따라 논제의 패턴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논술고사에서도 금번 모의고사와 같은 내용의 논제 Ⅱ가 제시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제도 제시될 수 있다. “제시문 (1)과 (4)의 논지를 비교하고, 이 두 제시문과 (3)의 관계를 설명하라.”, “제시문 (4)의 논지를 밝히고, (4)의 관점에서 (1)의 관점을 비판하라.” 등. 논제 Ⅲ의 경우에는 “제시문들의 공통주제를 말하고, 그 공통주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논제 Ⅱ와 논제 Ⅲ의 패턴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평소에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독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Ⅲ. 논제별 답안 사례와 평가(인문계)

논제1 우수답안의 사례

> 변증법적 관점은 전통 논리학을 부정하며 모순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대립되는 두 진술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편재적이고 생산적인 모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는 문제가 있다. 변증법 논자들은 모순의 창조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때 나타난다. 즉, 모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모순의 창조성은 사라지고 비판적 논의는 그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변증법적 관점에 따라 과학 탐구는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는데, 과학 탐구 대상인 자연 환경에서는 모순이 실재할 수 없다는 사실만 봐도 변증법적 관점은 새로운 논리학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답안은 제시문 (1)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압축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자신의 말로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

① 내용의 요약

제시문 (1)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자의 주장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 논거가 차근차근 제시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시문의 핵심 어구를 좀 더 활용해도 좋았겠다.

② 글의 구성

이 답안은 두 개의 단락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변증법적 모순에 대해 소개한 뒤, 두 번째 단락에서 모순의 창조성은 모순 극복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과 자연계에는 모순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글의 흐름을 볼 때 두 번째 단락을 둘로 나누어 전체 글을 세 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글의 구성이나 의미 전달에 있어서 세 단락 구조가 바람직했다고 본다.

③ 글의 형식

이 답안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에서 큰 하자가 없었다. 다만 '편재적'이란 표현은 다른 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더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변증법은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정립이 있을 때 그에 반대되는 반정립이 나타나고, 둘 사이의 해결이 되는 종합이 다시 하나의 정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념은 모순을 생산적이며 진보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모순은 현실 도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 논리를 버리고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순을 인정할 경우, 모순된 무엇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합리적 비판과 지적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모순을 인정함으로써 모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산력과 창조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변증법 논자들의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는 A이며 동시에 A가 아닌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 답안은 제시문 (1)의 내용을 비교적 무난하게 요약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요약이 요구하는 바는 제시문의 논지를 압축적이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 답안은 적절한 구성과 언어를 통해 제시문의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다.

① 내용의 요약

이 답안은 제시문 (1)의 논지를 비교적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시문의 내용과 논리를 객관적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압축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즉 변증법의 주요 개념과 변증법 논자들의 주장, 그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 등을 차분하게 제시함으로써 제시문의 논리전개에 따라 요약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맨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의 경우처럼 제시문의 내용을 과도하게 인용한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런 내용을 다른 어구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더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② 글의 구성

이 답안은 논지의 전개와 의미의 비중에 따라 3개의 문단으로 나누고 분량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간결하게 변증법의 논리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변증법 논자들의 논리적 근거와 그에 입각한 주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변증법 논자들의 논리를 적절한 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는데 제시문의 논지 전개상 다른 두 문단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제시문의 논리와 의도를 충실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참고로 이 답안의 경우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한 문단으로 합쳐도 무방할 것이다.

③ 글의 형식

이 답안은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여러 군데 보이는 점은 고쳐야 할 점이다. 특히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문장 모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점은 심각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세 번째 문단의 “모순된 무엇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등과 같은 서술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한정된 분량 안에서 제시문의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야 하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사족을 달지 말고 간결하게 내용 요약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논제1 부족답안의 사례

> 변증법이란 어떤 것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3요소를 통해 전개된다는 주장이다. 하나의 정립은 대립물인 반정립을 낳고 이 둘의 갈등은 해결책인 종합을 가져오며, 이 종합이 다시 정립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반합이 반복되는 것이다. 변증법 논자들은 모순이 진보의 원동력이므로 회피할 필요가 없으며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통적 논리학의 모순율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모순이 진보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순을 배격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해당되므로 모순을 용인하는 순간 모순은 무익한 것이 된다. 우리는 모순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순을 용인하면 어떤 진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과학의 붕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 모순적인 사실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답안은 제시문 (1)을 충분히 소화해서 요약했다기보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군데군데 발췌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글 구성에 있어서도 체계적이지 않다.

① 내용의 요약

제시문 (1)의 핵심은 변증법적 모순이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답안은 변증법이 무엇인가를 서술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막상 중요한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제시문의 표현을 과도하게 반복한 것도 감점 사항이 된다.

② 글의 구성

제시문 (1)의 내용을 문단 구분 없이 하나로 묶어 쓴 것이 거슬린다. 이는 제시문의 이해 부족과 구성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본인의 이해에 근거해서 소주제별로 문단을 나눠서 글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늘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 간 논리적 연결성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

③ 글의 형식

이 답안은 문법이나 원고지 사용법에 있어 큰 하자는 없지만 종종 모호한 진술이 발견된다.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생각을 담도록 해보자. 늘어지는 문장을 단문으로 바꾼다면 의미 전달이 훨씬 정확해질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증법은 근대적의미에서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3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변증법은 모순을 부정확하게 표현함으로 인해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다.
먼저, 변증법 논자들은 세가지 이유를 들어 모순을 옹호한다. 이는 모순이 사고의 역사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 매우 생산적이라는 것, 그리고 사고 진보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순의 창조성은 모순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다. 만약 모순이 용인되고 인정받으면, 이론에 모순이 있더라도 모순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모순에 의한 창조성과 다산성이 사라져서 인류의 지적인 진보가 멈춰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에서는 모순이 없다는 근거를 들어 모순의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이 답안에서는 제시문 (1)에 대한 요약문으로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문을 요약하는 데에 있어 끝까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 문장의 경우에서처럼 제시문에 대한 요약자의 평이 개입되어 있는 점도 옳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사이에 논리적 단절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요약자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① 내용의 요약
이 답안은 제시문 (가)의 내용을 부실하게 요약하였다. 먼저 변증법의 논리에 관한 언급이 지나치게 소략하다. 그리고 변증법의 논리를 적절히 요약하는 과정에서 '모순'을 언급하고, 그 모순에 관한 변증법 논자들의 견해가 제시되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은 그 내용으로 보아 적당한 위치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논리적 흐름이 부자연스럽고 핵심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지나치게 소략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감점 요인이다.

② 글의 구성
제시문 (1)의 내용 전개를 존중한다고 해도 답안을 4개의 문단으로 구성한 것은, 요약문에 주어진 글자수를 감안하건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변증법 논자들의 논거를 제시한 다음에는 제시된 논거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는 요약자가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시문의 일부분을 간추리는 방식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문단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어색하거니와 이 문장은 내용을 보충하여 앞 문단에 붙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③ 글의 형식
이 답안에서 문장 쓰기와 관련하여 띄어쓰기에서 몇 군데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근대적의미"와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세번째"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오류의 예이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근대적 의미'라는 용어는, 이 용어로 인하여 문장의 의미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논제2 우수답안의 사례

헤겔은 모순이 대립되는 특징을 동시에 나타내는 사물 자체의 객관적인 본질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헤겔의 변증법적 모순 개념은 모순이 발전 과정의 진보와 새로운 것의 등장에 유리한 전제들을 밝힘으로써 모순적 대립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4)의 이러한 내용은 (1)과 대조된다. 첫째로 후자는 모순을 진술이나 관념 사이의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전자는 모순을 우리가 사물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 (1)에서는 모순을 사실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순되는 두 진술은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4)는 사회의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에는 발전의 과정에서 형성된 모순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셋째로 (1)은 (4)의 주장처럼 모순이 창조적이라는 점에서 유익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모순된 이론을 바꾸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4)는 모순 자체가 진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 발전에 유리한 전제 또한 제시하기 때문에 모순을 용인한다고 해서 지적인 진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답안은 제시문 (4)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증법적 모순이라는 개념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적절하고 타당한 예를 들어 제시문 (4)와 (1)에 드러난 관점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라는 점도 잘 설명했다.

① 논지 정리

일반논리학에서 말하는 모순의 개념과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제시문 (4)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헤겔이 주장하는 변증법적 모순 개념의 유용성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냈다는 점이 돋보인다.

② 제시문 간의 비교

제시문 (4)와 (1)은 모순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관점을 담은 글로 구성되어 있다. 위 답안은 모순의 개념, 현실에서의 존재 가능성, 모순의 용인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 관점에서 그 대립 양상을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타당한 비교 범주의 제시야말로 이런 유형의 문제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맞서는 경우는 '대조'라기보다는 '대립'이라 해야 옳다.

③ 글의 형식

전체적으로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형식적 요소를 충실하게 지켰다. 다만, '~ㄹ수밖에', '~뿐만 아니라' 등의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하겠다.

제시문 (4)에 나타난 헤겔의 모순개념은 곧 변증법적 모순이다. 헤겔의 관점에 따르면 모순은 객관적인 것, 그리고 사물 그 자체의 본질 속에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모순은 대립되는 것들을 종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이 또다시 정립과 반정립이 공존하는 상태로 재생산되게 한다고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역동적인 조화와 진보가 가능한 사회가 창조된다는 것이다. 또, 변증법적 모순이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에서 일시성, 필연성, 그리고 조화 가능성을 드리낸다고 본다.

반면, 제시문 (1)은 변증법적 모순의 한계를 지적하며 모순은 긍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본다. (1)에서는 모순이 사회 진보의 원동력이 된다는 관점을 부정하고, 오히려 모순을 피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판, 토론 등을 통해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본다. 또, (1)에서 모순이 객관적, 본질적인 것에 근원으로써 내재하고 있다는 관점에 대비되어, (4)는 모순이 자연, 사실의 세계에서는 결코 생길 수 없음을 역설한다. 전체적으로, 제시문 (4)는 변증법적 모순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시문 (1)은 변증법적 모순을 한계를 들어 부정하고 있다.

① 제시문의 논지 파악

제시문 (4)에 나타난 헤겔의 변증법적 모순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요약, 정리하였다. 특히 헤겔의 모순개념이 지닌 장점을 역동성과 창조성의 측면에서 파악한 점은 논지의 이해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제시문 간의 비교

모순을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피하고자 노력할 때 사회의 진보가 있다면서 제시문 (1)의 논지가 모순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제시문 (4)의 논지는 모순의 긍정성을 피력한 것이라 명확하게 비교하였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제시문 (1)과 (4)의 논점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비교, 정리하였다. 논점의 명쾌한 비교로써 제시문 간의 논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점이 돋보인다.

③ 글의 형식

전체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의 형식적 요소를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형식적 측면에서 눈에 띄는 오류가 거의 없는 글이다.

논제2 부족답안의 사례

> 헤겔은 모순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객관적인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을 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이러한 헤겔의 생각은 본질속에서 모순이 나타난다는 헤겔의 관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한다. 그 결과, 현실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립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사회갈등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
> 헤겔은 사회 속의 모순된 대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모순이 갈등의 전개 속에서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다.
>
> 이러한 모순에 대한 헤겔의 관점은 모순의 인정을 통하여 존재하는 진술을 부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헤겔의 사용한 모순의 개념은 진술간의 모순에 있지 않다. 헤겔의 보여준 모순적 명제는 본질 속에 존재한 모순을 통하여 나타나는 실재적 대립이다. 이 정의로 의하여 헤겔이 표현한 모순은 변증법적 모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 속의 대립을 나타낸 헤겔의 모순적 개념은 사실의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모순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보이지 않는다.
>
> 헤겔의 모순적 개념은 객관적인 실재로서 사회의 대립을 표현했으며, 이러한 모순에 대한 다른 정의로 일반적 모순이 갖는 오류를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답안은 전반적으로 보아 논제의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글에 짜임새가 없어 내용의 중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주술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 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제시문 (4)와 (1)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논제의 요구에서 벗어나 제시문 (4)의 관점만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은 매우 큰 감점 요인이 된다.

① 논지 정리

위 답안은 제시문 (4)의 논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제시문 (4)의 논지는 변증법적 모순의 개념, 존재 양태, 유용성 등을 포함하여 간결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위 답안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짜임새 있게 핵심을 요약하지 못해 군더더기가 많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논지를 잘못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헤겔이 표현한 모순은 변증법적 모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언급이 그러하다. 요컨대 모두 열한 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위 답안 가운데 첫 번째 문장(헤겔은~), 여덟 번째 문장(헤겔의~), 다섯 번째 문장(일반적으로~)의 순으로 해서 세 개의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논지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면, 위 답안이 매우 비경제적이라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② 제시문 간의 비교

위 답안은 제시문 (4)의 관점만을 언급하고 그것과 제시문 (1)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 논제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했다. 논제 I 에서 제시문 (1)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하여 제시문 (4)를 요

약하면 저절로 두 제시문 간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두 제시문에 드러난 견해를 비교하여 어떤 면에서 같고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 즉 제시문 (4)와 (1)의 비교에서는 변증법적 모순이라는 개념에 대해 두 견해가 그것의 성립 가능성, 유용성, 객관적 실재 등의 관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따져 양자 사이에 대립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답안은 이러한 비교 없이 제시문 (4)의 관점만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부정확하게 서술하는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었다.

③ 글의 형식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의 형식적 요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주어와 술어가 일치 하지 않는 비문이 많은 점이 눈에 거슬린다. 짧은 글이라도 단락별로 핵심어를 선정하고 개요를 짜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헤겔의 논리학에서 모순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가 생각하는 모순은 진술과 판단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정한 한가지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내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단어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모순은 사물에 대한 인식, 사회적 모순, 그리고 문학의 범주 내에서 변증법적으로 파악하기 쉽다. 사물에 대한 인식의 면에서 헤겔은 모순이 사물 그 자체에 기원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사물에 정립과 반정립이 있기 때문에 이는 실재적 대립을 갖는 모순이다. 또한 사회적 모순에서 모순은 양극성 사이에서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생산되며 대립관계의 단계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문학의 범주에서 헤겔의 모순은 갈등의 형태를 지닌 양극이 문학의 전개과정에서 해결점을 찾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헤겔의 모순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모순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시문 (1)에서 변증법 논자들을 비판하던 것에 대해 근원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즉, 제시문 (4)는 제시문(1)에 대한 반론이다. 제시문 (1)에서 변증법 논자들이 다산성을 추구하여 그 모순의 다산성 내지는 창조성을 무시하면 변증법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제시문 (4)로 미루어 볼 때, 모순은 한가지 상황에서 자체의 본질에 기원이 있다는 성질로 (4)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① 제시문의 논지 파악

제시문 (4)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글의 전개가 매우 혼란스럽다. 논지 파악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지면의 2/3 가량을 사용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논리 전개를 하였다.

② 제시문 간의 비교

제시문 (4)와 (1)을 비교할 때 비교의 준거가 (4)가 되어야 논지의 전개가 매끄럽고 자연스러워

지는데, (1)을 먼저 들고 나옴으로써 제시문 간의 논지 비교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③ 글의 형식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문장들의 연결도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한다. 주어진 글자 수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하지 못할 만큼 효율적인 논지 구성과 논리 전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띄어쓰기에도 오류가 여러 개 발견된다.

논제3 우수답안의 사례

> 제시문 (3)에 나타난 동양적 사고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2)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한 것은 현실 도피적이었으며,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우선, 동양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만물은 언제나 변화 가능하며 역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남, 북한의 상황이 암울하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이 긍적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자살을 해서는 안되었다.
>
> 둘째, 동양 사람들은 모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완성, 상호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시문 (2)의 주인공은 남한과 북한의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순되는 모습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더 긍적적인 사회로 완성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
>
> 마지막으로, 동양에서 대립은 타협과 수용을 거쳐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비록 남, 북한의 사회 사상과 주인공의 생각이 대립한다고 해서 굴복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야만 했다.
>
> 위의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제시문 (2)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주인공 이명훈의 자살을 해석할 때 동양적 관점에서의 모순 극복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였다. 모순적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동양과 서양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 해석의 가능성 중에서 동양적인 대처법을 이해한 후 적용하여 주어진 논제를 풀어 나가야한다는 측면에서 이 답안은 전반적으로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글을 전개했다.

글의 구성에서도, 서론 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살이 도피인 이유를 적절히 제시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정당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더욱이 그 이유를 첫째와 둘째로 꼽아 전개해나간 각 부분들의 유기적인 배분이 모범적인 형태로 반영되었다. 비록 그 방식이 거칠긴 하였지만, 마지막에 결론 격의 논평을 달아 놓아 논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답안을 유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구성의 조화를 꾀하는 데 이와 같은 구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적인 관점은 두가지 대립되는 관점을 조화의 상태로 보고 상호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두 모순 모두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했다. 즉, 두 모순을 모두 참으로 보고 모순을 필연적으로 보았다. 제시문 (4)에서 주인공은 서양의 대립적인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갈등하다 도피를 선택한다. 하지만 동양의 관점에서는 두 이데올로기를 이분법적인 대립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제시문 (2)에서는 권위가 남아있는 스탈리니즘과 제국주의자들의 영향이 남아있는 남한의 자유의 이데올로기가 대립하고 있다. 주인공은 이 대립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도피한다. 하지만 동양의 생각으로는 이 대립이 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립이 당장은 서구의 논리에 의해 대립하지만 곧 상호 통제와 대립을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주인공이 두 이데올로기를 대립이 아니라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조화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도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양의 개념은 모순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두 이데올로기가 동양에서 비춰졌다면 서로 대립을 통해 역동적이고 변화가 가능하고 발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인공은 두 이데올로기가 불변하고 대립적이라고 여겼으므로 대립에 도피하려고 했다.

이 답안은 제시문 (3)이 가지고 있는 동양적 관점에서의 변증법적 사유의 특성을 잘 정리한 후 제시문 (2)의 주인공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서구적 형식논리에 입각한 것임을 지적한 후 이러한 선택을 사물의 속성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능하다는 상대론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 (2)와 (3)에 대한 명확한 논지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지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으며 문장 역시 매끄러운 편이다.

논제3 부족답안의 사례

주인공 명준은 전쟁중 포로로 잡혀 남한 혹은 북한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처해있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념의 선택을 의미한다. 이명준은 둘 모두를 피해 중립국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

동양적 사고는 변증법적 사고이다. 이는 모순되는 두 주장에서 각각의 진리를 찾아 결국 두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주는 역동적이며 가변적이라는것과 모든 사물은 이중성을 지닌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모순은 대립관계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역동적 조화상태인 두 모순된 주장이 타협을 통해 성숙되어 모두 수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명준에게는 이러한 타협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이념이란 불변의 것, 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둘 사이의 타협의 희망을 찾지 못한 그는 중립국을 선택했다. 이념의 강요가 없는 국가의 선택은 분명히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상황의 변화는 궁극적인 변화와 타협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느낀 명준은 결국 가장 궁극적 타협점인 죽음을 택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논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명준의 자살에 초점을 맞추어 중언부언이 심한 전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이 답안은 동양적 사고의 관점에서 모순의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결점이 가장 큰 오류로 지적될만하다.

이 외에도, 논리 전개가 "이념"이라는, 다소 엉뚱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결론의 방향성이 "변화"와 "타협"으로 치우쳐, 정작 논제에서 요구하는 모순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곳으로 논의 전반이 치우쳐 있다는 점은 논술에서 논제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비록 일관된 논지를 전개하려 하였고, 그 구성에서도 적절한 내용의 배분을 보여주지만, 논지 파악과 그것을 지문 속에서 읽어내는 힘이 약하다는 결함을 드러냈다. 요컨대 본 답안은 독해 능력의 결여, 논지 파악의 오류를 드러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모순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사실을 제시문 (3)의 실험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동양인은 모순되는 두 주장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타협을 통해 수용하는 변증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인들에게 우주란 끊임없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립-역설 변칙이 항상 발생하며, 신구·선악·강약이 하나의 사물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 속에서 타협을 통해 서로를 완성시키고 보완해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문 (2)의 주인공 이명준은 혼란적인 사회를 이기지 못하고 선택한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다. 명준에게 북한이란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다. 포로의 신분으로 귀향하게 되면, 자유가 없는 곳에서 제국주의자의 균을 묻히고 온 더러운 자로서 억압받게된다. 그렇지만 남한은 자유가 존재하지만 권력자의 위선으로 가득차 가기 싫은 곳이다. 그래서 중립국행을 택하지만, 중립국으로 가는 도중 바다에서 이상향을 찾아 바다로 뛰어든다. 이명준은 온갖 이념이 대립하고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상향을 추구한 것이다.

이 답안의 앞부분 즉 동양적 모순개념에 대한 서술은 제시문 (3)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재정리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2)의 주인공의 선택에 대한 비판보다는 상당부분을 왜 주인공이 자살하게 되었나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어긋난 구문이 빈번하게 나온다.

논제4 우수답안의 사례

상황 1에서
갑이 A를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AA와 AB이다.
또한, B를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BB와 BA이다.
이때, 갑은 최소극대화 원칙을 따르므로 BB와 AB를 비교하게 되는데, BB의 이득이 AB의 이득보다 크므로 B를 택하게 된다.
을의 경우, A를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AA와 BA 이며, B를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BB와 AB이다. 을 또한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르므로 BA와 BB를 비교하게 되는데, BB의 이득이 BA보다 크므로 을은 B를 택하게 된다.
그러나 갑과 을 모두 AA에서 BB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선택의 결과 합리성의 역설이 발생한다.
상황 2를 보면
갑이 A를 택한 경우는 AA와 AB이며 B를 택한 경우는 BA와 BB이다.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라 AB의 이득 > BB의 이득이므로 갑은 A를 선택한다.
을이 A를 택한 경우는 AA와 BA이며 B를 택한 경우는 BB와 AB이다.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라 BA의 이득 > BB의 이득이므로 을은 A를 선택한다.
어느 것도 AA에 비하여 갑과 을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켜주지는 못하므로 이 결과는 사회적 합리성을 가진다.
상황 3을 보면
갑이 A를 택한 경우는 AA와 AB, B를 택한 경우는 BB와 BA이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BB의 이득 > AB의 이득이므로 갑은 B를 선택한다.
을이 A를 택한 경우는 AA와 BA, B를 택한 경우는 BB와 AB이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BB의 이득 > BA의 이득이므로 을은 B를 선택한다.
그러나 BB에 비해 AA에서 갑과 을 모두의 이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선택의 결과 합리성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 답안은 제시문에서 정의하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논제에 답하는데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다. 먼저, 이 답안은 '최소극대화 원칙'을 주어진 세 가지의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각 상황에서 갑과 을의 선택이 어떠할 것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각 상황에서 갑과 을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사회적 합리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판정하고, 합리성의 역설의 발생 여부도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상황 1에서 갑은 A를 선택할 경우 최소의 이익은 가장 작은 AB가 되고, B를 선택한 경우 최소의 이익은 두 번째로 작은 BB이다. 따라서 갑은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서 B를 선택한다. 을의 경우 A를 선택하면 최소이익은 가장 작은 BA가 되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소이익은 두 번째로 작은 BB이다. 따라서 을은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B를 선택한다. 갑과 을이 모두 B를 선택한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 AA라는 더 큰 이득을 주는 결과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리성에 어긋나 합리성의 역설이 발생한다.

상황 2에서 갑은 A를 선택할 경우 최소의 이익은 두 번째로 작은 AB가 되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소의 이익은 가장 작은 BB가 된다. 따라서 갑은 A를 선택한다. 을의 경우 A를 선택하면 최소의 이익은 두 번째로 작은 BA가 된다. 하지만 B를 선택하면 최소의 이익이 가장 작은 BB가 된다. 따라서 을은 A를 선택하게 된다. 갑을이 모두 A를 선택한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이득을 주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이 선택은 합리성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상황 3에서 갑은 A를 선택할 경우 최소의 이익은 가장 작은 AB가 되고, B를 선택활 경우 두 번째로 작은 BB가 된다. 따라서 갑은 B를 선택하게 된다. 을의 경우 A를 선택하면 최송의 이익은 가장 작은 BA가 되고, B를 선택할 경우 최소이익은 두 번째로 작은 BB가 된다. 따라서 을은 B를 선택하게 된다. 갑과 을이 모두 B를 선택한 상화에서 갑과 을 모두 AA라는 더 큰 이익을 주는 결과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리성에 어긋나 합리성의 역설이 나타난다.

이 답안은 제시문의 최소극대화 원칙을 적용하여 각 상황에서 갑과 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하였고 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성의 역설의 발생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였고 이를 명확히 논술하고 있다.

논제4 부족답안의 사례

상황 1에서 개인이 최소극대화 원칙을 따르면 갑은 B를 선택하고 을 또한 B를 선택할 것이다. 갑에게 최소의 이득은 AB가 되었을 때인데, 이 때의 선택인 A를 피하여 B를 선택하게되는 것이다. 을 역시 자신에게 최소의 이익이 되는 때인 BA를 피해 B를 선택한다. 그렇게되면 BB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4개중 3번째로 이익이 많은 때를 선택해야 합리적인 선택이 될텐데 개인이 합리성을 따라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여 선택하여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로 이익이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되었으므로 사회적 합리성이 결여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의 합리성으로 사회적 불합리함이 도출되었으므로 이것은 합리성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 2에서 개인이 최소극대화 원칙에 입각하여 선택을 한다면 갑은 A를 선택하고 을도 A를 선택하게 된다. 갑에게 최소의 이익은 BB이므로 B를 피해 A를 선택한다. 을은 최소이익인 BB를 피해 A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AA가 선택되는데 이 결과는 두 사람 모두에게 4개의 결과중 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은 합리성을 가지고 최소극대화 원칙을 따라 선택했지만 각자에게 가장 이익되는 결과가 선택되지 못했으므로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는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한 선택, 즉 합리성의 역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상황 3에서는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최소극대화 원칙을 따랐을 때 갑과 을의 선택은 갑은 B, 을은 B이다. 왜냐하면 갑은 최소이익인 AB를 피하기 위해 B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을 역시 자신에게 최소이익인 BA를 피해 B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갑에게 4개 중에 이익이 3위인 BB가 선택되며, 을에게도 이익 3위인 BB가 선택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AA가 선택되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은 개인이 합리성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에서는 합리적인 결과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합리성의 역설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답안은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르는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정확하게 판단하였으나, '사회적 합리성'과 '합리성의 역설'에 대한 제시문의 정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결과를 평가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고의 이익을 실현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합리성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처럼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황 1과 3에서는 합리성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결과는 바르게 지적하였으나,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상황2에 대해서는 합리성의 역설 발생 자체에 대해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다.

상황 1

갑 – BA AA BB AB 을 – AB AA BB BA

4 3 2 1 4 3 2 1

		A	B
갑	A	3	①
	B	4	②
을	C	③	4
	D	①	2

갑은 B를 을은 A를 선택한다.

상황 2

갑 – BA AA BB AB 을 – AB AA BA BB

4 3 2 1 4 3 2 1

		A	B
갑	A	3	②
	B	4	①
을	C	③	4
	D	②	1

갑은 B를 을은 A를 선택한다.

상황 3

갑 – AA BA BB AB 을 – AA AB BB BA

4 3 2 1 4 3 2 1

		A	B
갑	A	④	1
	B	③	2
을	C	4	③
	D	1	②

갑은 A를 을도 A를 선택한다.

상황 1은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의하면 갑은 B를 을은 A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리성에 의하면 AA를 선택할 것이다.

상황 2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의하면 갑, 을 모두 A를 선택할 것이다. 사회적 합리성에 의해서도 AA를 선택하게 된다.

상황 3은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갑, 을 모두 A를 선택하며 사회적 합리성에 의해서도 AA를 선택한다.

상황 1에서 개인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른 선택이 사회적 합리성과 달라서 모두에게 큰 이득을 주지 않는다. 이는 합리성의 역설을 보여준다.

이 답안은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르는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분석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분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술을 결여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상황1과 상황3에서 개개인의 선택을 틀리게 도출하여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이해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는 “상황1에서...사회적 합리성에 의하면 AA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서술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서술에 의하면 마치 사회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결과가 AA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A뿐만 아니라 AB와 BA라는 결과도 사회적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는데 이는 이 세 가지 결과 각각에서보다도 갑과 을의 이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른 결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연 계